

이일례(서울신대)

### 1. 들어가는 말

시편 4편은 양식적 특징에 따라 개인 탄원시로 이해할 수 있다.<sup>1)</sup> 이 시편의 구조는 하나님-탄원과 원수-탄원 그리고 자기-탄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난당하는 시인이 손상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탄원하는 하나님-탄원과 공동체와 빚어지는 갈등을 탄원하고 있는 원수-탄원,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신에 관한 자기-탄원이 서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한다. 그렇다면 이들 유기적 삼중구조 속에 담겨 있는 신학적 주제는 무엇이며 이 주제를 찾기 위해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까? 특별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13S1A5B5A07047430).

1) 김태경, "시편연구사 1990년 이후 현재까지", 『구약논단』 53집 (2014년 9월), 328-329.

히 원수-탄원은 이들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 것일까?

개인 탄원시에서 고난당하는 시인의 사회적인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원수-탄원에 관한 이해는 탄원시의 신학적 주제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열쇠를 제시한다. 왜냐하면 개인 탄원시에 나타나 있는 원수에 관한 분석은 다양한 고난이해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하나님이해를 산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sup>2)</sup>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개인 탄원시의 원수-탄원에 나타나는 '원수'와 관련하여 시편 4편의 시인의 '원수는 누구인가?'의 관점에서 살핀다. 뿐만 아니라 '혼돈의 세력으로 이해될 수 있는 원수들의 행위가 하나님 이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가?'라는 관점에서 원수를 파악하여 밝히고, 이를 도움으로 시편 4편에 나타나고 있는 유일신 사상과 신정론의 특징을 파악할 것이다.

### 2. 시편 4편의 나타나는 원수

다윗 애가 모음집의 하나인<sup>3)</sup> 시편 4편은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고난에 관한 묘사(2-4절)[1-3]; 고난의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5-6절)[4-5]; "사람의 아들들"에 대한 요청과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표현(7-9절)[6-8].<sup>4)</sup> 첫 번째 단락 2절과 마지막 단락 7-9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2인칭으로 지칭한다. 이와는 달리 두 번째 단락 4[3]절과 6[5]절에서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학적 현상은 3-6[2-5]절을 시편 4편의 중심축으로 이해하며<sup>5)</sup> 2절과 7-9절은 이를 아우르는 테두리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2) M. Baus, *Die Feinde des Psalmisten und die Freunde Ijobs. Untersuchungen zur Freund-Klage im Alten Testament am Beispiel von Ps 22*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2003), 78.

3) 김희석, "시 144편에 나타난 다윗 왕권과 그 신학적 함의", 『구약논단』 38집 (2010년 12월), 84.

4) 이 논문에서 장절 표기는 히브리 성경 BHS의 것을 먼저 적고 한글 성경의 것은 바로 뒤 [ ]안에 넣기로 한다.

5) 함성국, 『시편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563.

이러한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시편 4편에 형성되고 있는 다양한 ‘대화’층은 특별한 문학적 요소로 기능한다.<sup>6)</sup> 먼저 시인은 3절에서 “인간의 아들들”과 논쟁하며 그리고 7절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다. 여기 의문문 형식의 동일한 문학적 현상 속에 나타나는 내용상 긴장감은 시편 4편의 신학적 주제를 포괄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3절과 7절에 표현되어 있는 시인과 “사람의 아들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대화는 전체적 논쟁의 틀을 형성하고 신학적 주제를 발원시킨다.

### 1) “שִׁבְיָנוּ” (베네 이쉬/사람의 아들들)의 기능(3절)

#### (1) “שִׁבְיָנוּ”는 누구인가?

첫 번째 단락 3[2]절에서 시인은 그의 주변사람들과 논쟁적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sup>7)</sup> 시인은 의문문을 통해서 “사람의 아들들”(שִׁבְיָנוּ)과 자신의 생각을 서로 상치시킨다.<sup>8)</sup> “사람의 아들들” 표현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 경향을 형성해 왔다. 궁켈은 “사람의 아들들”을 신분이 높은 상류층 사람들로 이해한다.<sup>9)</sup> 그는 무엇보다도 고대 근동에서 사용된 이 표현의 용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용어는 이집트와 바벨론에서 영향력 있는 소유자계층을 언급할 때 사용되었다. 그리고 아카드어 함무라비 사본에서는 “자유인”을 언급할 때 사용했으며,<sup>10)</sup> 지주에게 예속된 자 또는 노예와 반대되는 자들을 언급할 때 쓰인 용어이다. 궁켈은 또한 시편 49편 3[2]절에 나타나는 두 가지 표현, “גַּם בְּנֵי אָדָם” (감 베니 아담/가난한 자들)과 “שִׁבְיָנוּ” (감 베니 이쉬/부

유한 자들)에서 형성되는 교차대구법과 반의적 평행법을 지적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표현을 단순한 대조적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גַּם בְּנֵי אָדָם”이 ‘일반적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과는 달리, “שִׁבְיָנוּ”는 명망 있고 존경받는 자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sup>11)</sup>

크라우스는 궁켈의 이해에 따라 “사람의 아들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거짓 고발하고 판단하는 소유계층의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sup>12)</sup> 그는 3[2]절에 나타나는 “사람의 아들들” 표현을 8[7]절에서 암시하는 가난한자와 관련하여 이해한다.<sup>13)</sup> 그들을 시인의 존엄성을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파괴하기 위해 그의 명예를 욕되게 하고 훼손하는 자들로 규정한다.<sup>14)</sup> 쟁어는 그의 주석서에서 3[2]절의 의문문을 가난한 자들이 부유한자들에게 던지는 비난의 질문으로 이해하면 일반적인 경향을 수용한다.<sup>15)</sup> 지금까지 연구사가 지적한 것처럼, 시편 4편의 시인의 ‘원수는 누구인가?’의 관점에서 우리는 “사람의 아들들”을 죄 없는 가난한 시인을 괴롭히며 추격하는 ‘부유한 자들’ 혹은 명망 있고 ‘존경받는 자들’로 정의할 수 있다.<sup>16)</sup>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 지금까지 연구사가 보여준 것처럼, 시편 4편에서 “사람의 아들들”의 기능을 시편 4편의 시인의 ‘원수는 누구인가?’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은 시편 4편에 나타나 있는 신학적 핵심 메시지를 간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인의 명예를 욕되게 하고 훼손하는 원수들의 행위가 단지 시인의 ‘가난’ 비롯되고 있는 것일까? 시편 4편에 나타나 있는 이중구조는 가난한자

6) B. Weber, *Werkbuch Psalmen I, Die Psalmen 1 bis 72, Stuttgart* (Berlin; Kln: Kohlhammer, 2001), 60.  
 7) 윗글, 60-61.  
 8) 김성수, “문맥으로 시편 24-33편 읽기”, 『구약논단』 48집 (2013년 6월), 91.  
 9) H. Gunkel, *Die Psalm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51968), 16-17.  
 10) L. Dürr, “Zur Datierung von Ps 4”, *Bib* 16 (1935), 336.

11) H. Gunkel, 윗글, 16-17.  
 12) H.-J. Kraus, *Psalmen 1. Psalmen 1-59*, BK XV/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Theologie, 51978), 169.  
 13) 윗글, 168.  
 14) 윗글, 169.  
 15) Hossfeld/Zenger, F. -L. Hossfeld/ E. Zenger, *Die Psalmen I. Die Psalmen 1-50*, (NEB 29, Bonn: Echter, 1993) 61.  
 16) 윗글, 167.

와 부유한자의 단순한 갈등인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아들들”의 의미를 이 표현이 쓰이고 있는 실제 시편 4편의 상황 안에서 “왜 ‘사람의 아들들’은 시인의 원수인가?”를 구체적이며 조직적으로 묻고 찾아야 한다. 3[2]절에서 시인은 미완료시제, 두 동사 ‘좋아하다’와 ‘찾다/구하다’로 이루어진 의문문을 통해서 “사람의 아들들”로 인한 시인의 당혹스러운 고난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거짓”과 “헛된 일”을 꾸며 시인의 명예를 욕되게 하고 훼손시키는 자들로 표현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아들들”이 부유한 상류계층의 사람들이든 아니든 “사람의 아들들”을 시인을 괴롭히는 시인의 원수들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까지 ‘원수들에 관한 연구사’가 지적한 것처럼 어떤 원수의 그룹에 속하는 것일까?<sup>17)</sup> 시편 4편의 원수들이 ‘일반적인 중립적 원수들 그룹’(neutrale Feindbezeichnungen)으로 보기에 이들의 행위가 매우 적극적이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시인과 이들 사이에 형성되는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이들은 신뢰를 상실한 친구/친척들(treulose Freunde/Verwandte)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sup>18)</sup>

3[2]절 “사람의 아들들”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무엇보다도 “어느 때까지-질문”(wielang-Frage)이다. 이 질문은 “사람의 아들들”의 괴롭힘에 관한 극복, 다시 말하면 원수들의 대적함이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가를 관심 갖는다. 시인과 매우 가까이 있으나 시인의 명예와 존엄성을 훼손하며 욕되게 하고 거짓과 헛된 일로 시인을 괴롭히는(3절[2]) 그들의 거짓과 헛된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시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그들의 행위는 무엇일까?

17) B. Janowski, *Konfliktgespräche mit Gott. Eine Anthropologie der Psalme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Theologie, 2003), 106.

18) 윗글, 105.

## (2) “בְּנֵי אִישׁ”의 행위는 무엇인가?

첫 번째 단락 3[2]절에서 대화로 시작된 시인과 주변사람들과 논쟁은 내용상으로 중심 단락이 되는 3-6[2-5]절의 구조 속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펼쳐진다. 이 구조를 통해서 시인은 그의 논쟁을 뜨겁게 하고 있다(3-6절). 우리는 시인과 “사람의 아들들”의 언어의 세계에서 이들 양자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다. 3[2]절의 의문문을 통한 ‘원수-탄원’에 이어 시인은 4-6[3-5]절에서 ‘과거의 하나님 경험’(4[3]절)을 동반한 각각 명령형으로 ‘원수-탄원’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학적 특징 속에서 시인은 그의 명예와 존엄을 손상시키는 “사람의 아들들”의 행위를 원수들의 행위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다.<sup>19)</sup> 뿐만 아니라 이어서 이들 원수들에게 그들 행위의 구체적인 수정케도를 제시하고 있다. 비난 섞인 질문은 “사람의 아들들”에게 그들의 수정된 사고로부터 일어나는 ‘대답에 대한 기대’를 암시함으로 “사람의 아들들”의 의도적인 교훈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시인은 3[2]절의 “사람의 아들들”과 4[3]절에서 “경건한 자”를 대조 시키고 있다.<sup>20)</sup> 3절의 “사람의 아들들”과 관련하여 자신을 “경건한자”으로 암시하고 있다. 동시에 시인은 4절의 명령문을 통해서 “경건한자”를 기억하시는 야훼의 본질적 특징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명령문 형식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아들들”의 올바른 ‘인식’을 요청하고 있다(4절).<sup>21)</sup> 여기서 물론 원수들이 시인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2절) 어디에서 기인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밝히기 어렵

19) K. Seybold, *Die Psalmen*, HAT I/15 (Tübingen: Mohr Siebeck, 1996), 38.

20) 비교. 시편 12편 2절; 16편 10절 참조. 시편 1편 5절 이하.

21) R. Rendtorff,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Ein kanonischer Entwurf, Bd 2: Thematische Entfaltung*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Theologie, 2001), 178.

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들 원수들의 행위는 시인을 경건한자로 기억하는 야훼의 행위와 분명히 서로 위배되고 있다.

이와 같이 관찰한 현상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신학적 주제를 읽어낼 수 있다. 첫 번째, 서로 위배되고 있는 원수들과 시인의 고난에 대한 입장이다. 다시 말하면 시인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사건 속에서 이를 바라보는 “인생들”은 시인을 욕되게 하고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 그러나 시인은 적어도 그 사건을, 자신을 욕되게 하고 명예를 훼손당할 사건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을 경건한자로 이해한다. 그리고 “인생들”의 입장을 탄원하고 있다. 둘째로 야훼를 경건한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시인의 입장은 동시에 고난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시인의 ‘하나님 이해’이다. 즉 시인의 하나님에 대한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중심부의 논쟁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시인과 원수들의 서로 다른 하나님 이해로 규정할 수 있다. 시인을 괴롭히는 행위는 시인을 경건한자로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원수들의 그릇된 하나님 이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로 인해 빚어지는 시인과 그들의 상처된 하나님 이해는 시인에게 [2차]고난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5절에서 동일한 양식으로 “사람의 아들들”에게 “떨며” “범죄하지 말고”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단어 “**נָפַח**”(라가뜨/떨며)의 사용은 하나님 이해와 관련하여 중요한 신학적 요소이다.<sup>22)</sup> 이 용어는 야훼가 권능의 행위로 자신의 하나님 됨을 보여주는 경우, 인간의 반응을 나타낼 때 쓰인다.<sup>23)</sup> 시인은 용어, “떨며”와 관련하여 다른 범주의 용어, “**חָטָא**”(하타/범죄하다)로 “사람의 아들들”의 문제를 명시한다.<sup>24)</sup>

22) T. Veijola, *Das fnfte Buch Mose Deuteronomium: Kapitel 1, 1-16, 17*, ATD 8,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4), 65.

23) Hossfeld/Zenger, *뜻글*, 61.

24) *뜻글*; Vanoni, Art., “**חָטָא**”, *ThWAT*, Bd. VII, 328; Koch, (Art) “**חָטָא**”, *ThWAT*, Bd. II, 859.

하나님의 임재는 시인을 괴롭히는 “사람의 아들들” 행위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시인은 “사람의 아들들”을 향하여 ‘고난과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요청하고 있다. 시인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의 아들들”이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경건한 자를 구별하시는 하나님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신학적 논쟁은 또한 6절에서 절정에 이르고 있다. 6절은 5절의 경고에 대한 요청과 나란히 평행을 이루고 있다.<sup>25)</sup> 6절에서 시인은 “사람의 아들들”에게 “의의제사”를 요청하고 있다. 제의 공동체를 향하여 야훼에 대한 신뢰의 요청으로 두 번째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다. 6절에서 시인이 경고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의의제사”에 관한 다른 구약성서 본문과 유추하여 해석할 수 있다. 6절에 나타나고 있는 “의의제사”에 관한 비평은 무엇보다도 예언서에 잘 나타나 있다.<sup>26)</sup> 예언자들에 의해 비난받으며, 가치를 상실한 악한제사 제물에 반대되는 말이 “의의제사”이었다.<sup>27)</sup> 또한 율법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제사는 들의 좋은 소산이나 가축의 가장 순수한 것으로 드러지는 예물을 통한 제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sup>28)</sup> “의의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한 핵심 주제로 삼는다. “의의제사”는 제사장의 요구에 의한 속죄제물을(삼상 3:14) 통한 속죄를 성취하는 것보다,<sup>29)</sup> 야훼의 이름으로 정의와 공평을(사 1:17; 암 5:2), 가난한 자와 연대감을 요구하고 있다(암 5: 21-27; 사 1:10-17). 이처럼, “의의제사”에 관한 삶의 자리는 다양한 정황들을 가진다.<sup>30)</sup> 그러므로 “의의제사”를 각각의

25) L. Dürr, *뜻글*, 337.

26) W. H. Schmidt, *Alttestamentlicher Glaube*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Theologie, 1996), 188-189.

27) L. Dürr, *뜻글*, 337.

28) L. Dürr, *뜻글*, 신명기 33장 19절; 시편 50편 21절; 비교. 레위기 19장 13절; 신명기 25장 25절; 에스겔 45장 10절; 욥기 31장 6절(잠 16:6; 비교. 잠 10:12; 14:31).

29) W. H. Schmidt, *뜻글*, 189.

30) H.-J. Kraus, *뜻글*, 170-171.

본문에서 제시하는 정황에 따라 해석될 수 있다. 뒤르(L. Dürr)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시편 4편의 시인은 “의의제사”를 그의 본문에서 핵심 용어로 수용하고 있다.<sup>31)</sup> 시인은 “사람의 아들들”과의 논쟁에서 “의의제사”의 문제를 표면에 떠올리고 있다. “의의제사”는 그와 그의 공동체를 실제적으로 구원으로 안내할 수 있는 ‘희생제사’임을 주장하고 있다.<sup>32)</sup>

무슨 문제일까? 이들 양자는 제의 비평으로 인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일까? 시편 4편의 시인의 고난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시편 4편의 “의의제사”와 관련하여 발(O. Wahl)은 고소인(Anklger) 시인이 “사람의 아들들”에게 “의의제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33)</sup> 이를 통해서 죄 없이 고발당한 자(Angeklager), 시인이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이해한다.<sup>34)</sup> 실제로 여기서 시인은 “사람의 아들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간섭을 소망하며 신뢰하고 있다. 시인이 그의 공동체에게 요구하는 제사는 그들과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뿐만 아니라 시인과 그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 요청되는 “의의제사”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들의 손상된 관계의 원인이 되는 서로 다른 고난이해와 하나님이해를 “의의제사”를 통해 수정되기를 원하고 있다.

31) L. Dürr, *읽글*, 337.

32) F. L. Hossfeld/E. Zenger, *읽글*, 62.

33) O. Wahl, “Dua!lein, Herr, lt mich sorglos ruhen”, Haag/ F.-L.Hossfeld, ed, *Freudean der Weisung des Herrn: Beiträge zur Theologie der Psalmen; Fest gabe zum 70. Geburtstag von Heinrich Groß*, SBB 13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1986), 459.

34) O. Wahl, *읽글*.

## 2) “רַבִּים”(라빔/많은 사람들)의 기능(7절)

### (1) “רַבִּים”는 누구인가?

세 번째 단락(7-9절)[6-8]은 “많은 사람들”(רַבִּים)로 시작하고 있다. 인용구로 시작하고 있는 7a절과 7b절은 내용상 시인과 “많은 사람들”과의 논쟁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7a절)와 “우리에게 비추소서.”(7b절)에서 공통적으로 쓰인 동일한 1인칭 복수 목적격 접미사(וַ)를 통해서 7a절과 7b절은 내용상 평행을 이루고 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서로 대조를 이루며 중요한 신학적 핵심어가 되고 있다.

“מִי-יִרְאֶנִּי”(미-야르에누/누가 ... 우리에게 보일 것인가?)(7a절)와 “בְּסֵחַ-עֲלֵינוּ”(네싸-알레누/우리에게 비추소서!)(7b절)은 동일한 접미사(וַ)를 통해서 시인을 포함한 불특정다수로 이루어진 하나의 공동체를 암시한다. 이와 같은 문학적 형식은 시인과 “많은 사람들”들이 하나의 공동체이며 동일한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고난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결여된 두려움을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7a절)을 통해서 호소하고 있다.<sup>35)</sup> 그들은 고난의 상황을 그들이 선한 것을 볼 수 없는 상황, 삶을 축복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재로 이해한다(7a). 그러나 시인은 이들의 이해와 달리 “우리에게 비추소서.”(7b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한 다른 이해를 제시한다(7b). 그는 “우리에게 비추소서.” 표현에 뒤따르는 관용구, ‘하나님의 얼굴’(פָּנֵי הַיְהוָה)을 통해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하나님 얼굴의 빛을 비추실 때임을 촉구하면서 7a절 나타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견해를 부정하고 있다.<sup>36)</sup> 고난과 관련하여 하나님에 대한 서

35) *읽글*, 464.

36) H. -J. Kraus, *Psalmen 1. Psalmen 1-59*, 172.

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인은 “많은 사람들”의 질문, “선을 보일 자 누구뇨?”에 명령형으로 반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편에서 명령형의 표현은 ‘저주’ 혹은 비난의 의미를 함축한다.<sup>37)</sup> 그러므로 7b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명령형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역동적 간청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저주’ 혹은 비난의 의미를 함축하는 형식을 빌어서 시인은 하나님의 ‘복수’ 또는 ‘양갚음’을 소망한다. 물론 시인의 청원이 순수한 복수열망인지 아니면 다른 모티브가 함축되어 있는지를 묻는 물음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7절에서 시인은 원수들의 하나님 이해를 수정하기 위해 그들과 논쟁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7절은 복수의 판타지를<sup>38)</sup> 형상화하고 즐기는 것이 주제가 아니다. 오히려 구원의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과 관계의 수정을 목적으로 한다.

## (2) “מִי־גֹאֲלֵי”의 행위는 무엇인가?

7a절과 7b절은 고난에 관한 서로 다른 상반테제를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7a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질문은 수사적 질문이다. 그들은 ‘고난의 상황을 그들이 선한 것을 볼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시인은 ‘하나님 얼굴의 비추심’<sup>39)</sup>을 언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반론한다. 이스라엘 탄원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얼굴의 가리심’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의 숨이 멎는 것을, 생명의 단절을 의미한다.<sup>40)</sup> 이스라엘이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 부재로 인한 결과를

의미 한다.<sup>41)</sup>

이와 같은 이해의 배경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 부재’를 탄원하며 ‘하나님 임재’를 간박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 얼굴의 비추고 계신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sup>42)</sup> 또한 ‘하나님 임재’를 통한 공동체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sup>43)</sup> 이것이 7b절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의 본질이다. 실제로 시인은 그들의 주장을 자신의 탄원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하나님 이해를 논증해가고 있다.

7절의 논쟁에 이어 8절에서 신앙고백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시작되고 있다<sup>44)</sup> 시인은 “내 가슴에 기쁨을 주셨습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5절에 사용된 단어 “גִּבְרִי” (레브/가슴)을 시인은 8절에서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 시인은 8절에서 5절의 사상을 받아서 계속하여 사유하고 있다. 5절에서 “גִּבְרִי”는 시인의 원수, “인간의 아들들”과 관련된다. 시인이 인간의 아들들에게 더 이상 죄 짓지 않기 위해 심중에 깊은 생각으로 채울 것을 요청할 때 사용된다. 이와는 달리 8절에서 “גִּבְרִי”는 시인과 관련된다. 고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인의 가슴이 이미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쓰이고 있다. 이 단어를 통해서, 8절에서 자신의 신앙고백을 5절의 원수들의 상황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인간의 아들들”과 시인의 동일한 고난의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암시적으로 이야기 해 준다. 그리고 5절과 8절의 연관성을 통해서 전반부의 신학적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시인은 시인

37) L. Ruppert, “Fluch- und Rachenpsalmen”, NBL Bd.1 (1991) 685.

38) E. 썬어, 『복수의 하나님?』 (이일례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161. 원저는 Erich Zenger, *Ein Gott der Rache? Feindpsalmen verstehen* (Freiburg; Basel; Wien: Herder 2011).

39) F. Crüsemann, “Der Gewalt nicht glauben”, 263; L. Perliitt, “Die Verborgenheit Gottes”, H.W. Wolff ed, *Probleme biblischer Theologie* (FS G. von Rad) (München 1971), 373.

40) F. Crüsemann, *윗글*.

41) F. Crüsemann, *윗글*, 263; W. Groß, “Das verborgene Gesicht Gottes—eine alttestamentliche Grunderfahrung und die heutige religiöse Krise”, W. Groß, ed, *Studien zur Priesterschrift und zu alttestamentlichen Gottesbildern* (SBAB 30;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1999), 186.

42) W. Groß, *윗글*, 185.

43) *윗글*, 185.

44) O. Keel, *Feinde und Gottesleugner. Studien zum Image der Widersacher in den Individualpsalmen* (SBM 7;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1969), 139.

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의존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시인은 8절을 현재완료형 “הִתְחַלֵּף”(나뒀다/주다)으로 시작하여 동일한 형식의 동사 “רָבַח”(라부/풍성하다)으로 마무리한다. 이들 동사는 ‘청을 들어줌의 확신’(Erhörungs-gewissheit)를 강조한다.<sup>45)</sup> 동시에 ‘곡식과 포도주’의 표현을 통해서 시인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에 종속되지 않는 자신의 기쁨을 이야기 하고 있다.<sup>46)</sup>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된 선물이다.<sup>47)</sup> 곡식과 풍성한 포도주는 이스라엘 땅에서 야훼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상징이다.<sup>48)</sup> 마지막 9절에서 시인은 공동체와 그들의 신학적 문제를 종결한다. “מִלְּפָנָי”(바살롬/평안히)으로<sup>49)</sup> 시작하고 있는 표현은 ‘나’에 관한 언급으로 시인의 하나님 이해를 암시한다.<sup>50)</sup> “מִלְּפָנָי” 표현과 함께 “הִשְׁכַּחְתִּים”(에쉬케마/놓다)와 “יָשַׁח”(이산/자다) 미래완료시제로 일반적인 사실과 행위를 표현하고 있다. 완료 시제를 사용하는 8절과 다르게 9절은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문체의 차이점은 9절과 8절 사이 내용상 긴장감을 조성한다. 8절은 완료 시제를 통해서 청원을 들어주심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반면, 9절은 미완료 시제를 통해서 일반적 객관적 사실과 행위 속에서 확신을 나타낸다.

이 표현과 관련하여 세이볼트는 시인이 자신 앞에 직접적으로 놓여 있는 모든 것을 믿음을 가지고 보는 밤으로 이해한다.<sup>51)</sup> 호스펠트는 밤에 종속되지 않는 시인의 믿음을 강조한다.<sup>52)</sup> 그는 시인이 야훼와 함께

구원의 아침을 기다리며 야훼의 임재를 확신하고 있는 밤으로 이해한다. 데 보스에 따르면 시인은 하나님의 간섭의 기대 속에서 평화로운 잠을 이룰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sup>53)</sup>

9절에서 죽음의 위협적인 고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절대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보여 주고 있다.<sup>54)</sup> 시인은 자신의 탄원의 최종적 시점에서 공동체에게 이미 이루어진 실제적 구원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다기보다는,<sup>55)</sup> 오히려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밤도 그를 방해하지 못한다는 신뢰를 표현하고 있다.<sup>56)</sup> 고통과 관련하여 선택하신 하나님 신앙으로 시인은 서 있다.<sup>57)</sup>

### 3. 시편 4편에 나타나는 하나님 이해: 유일신개념과 신정론

#### 1) “인간의 아들들”의 하나님 이해와 시인의 유일신 개념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2[1]절, “나의 의의 하나님여!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는 ‘과거의 하나님 경험’을 근거로 그의 탄원을 시작하고 있다. 시편 4편의 중심축이 되는 3-6[2-5]절에서 “인간의 아들들”과 시인의 논쟁이 시사하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에서 우리는 이들의 서로 다른 하나님 이해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시인은 자신의 ‘어떤 특수한 상황’을 바라보는 “인간의 아들들”의 견해를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헛된 일과 거짓된 것으로 이해한다. 고난당하는 시인의 사회

45) H. Gunkel/J. Begrich, *Einleitung in die Psalmen: Die Gattungen der religiösen Lyrik Israels*, Zu Ende gefhrt von J. Begri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41985) 344-346.

46) O. Keel, *윳글*, 139.

47) 참조. 신명기 7장 13절, 11장 14절 등

48) F. -L. Hossfeld/E. Zenger, *윳글*, 62.

49) Ringgren, “לָפָנָי”, ThWAT, Bd II, 150.

50) L. Dürr, “Zur Datierung von Ps 4”, *Bib* 16 (1935), 330338.

51) K. Seybold, *윳글*, 39.

52) F. -L. Hossfeld/E. Zenger, *윳글*, 62; H. Gunkel, *Die Psalmen*, 17.

53) C. de Vos, *Klage als Gotteslob aus der Tiefe: Der Mensch vor Gott in den individuellen Klagepsalmen* (Forschungen zum Alten Testament 2. Reihe, Tübingen: Mohr Siebeck, 2005), 75.

54) *윳글*, 75.

55) *윳글*, 75; F. -L. Hossfeld/ E. Zenger, *윳글*, 62 ; Beuken, “שָׁכַח”, ThAT /VII, 1311: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9절의 “הִשְׁכַּחְתִּים”와 “יָשַׁח”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한다.

56) F. -L. Hossfeld/ E. Zenger, *윳글*, 63.

57) W. Brndle, “Das Ende de Theodizeefrage?”, Michael Nüchtern, ed, *Warum Lässt Gott das zu?* (Lembeck, Frankfurt 1995), 64.

적인 관계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시인의 손상된 사회적 관계에 제한되지 않는다. 시인은 자신을 괴롭히는 “인간의 아들들”에게 ‘죄짓지 말 것’(5절)과 ‘잠잠히 있음’(5절)과 ‘의의제사’(6절)를 요구함으로써 이들에게 이 요소들이 결여 되어 있음을 암시하면서 동시에 이들의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시인은 자신을 ‘경건한 자’(4절)로 표현한다. 여기서 우리는 개인 탄원시에 나타나는 하나님-탄원과 원수-탄원 그리고 자기-탄원의 유기적 삼중구조를 볼 수 있다.

중심단락에서 시인은 “인간의 아들들”에게 이들의 ‘불신앙적인 태도’(2-6절)에 대하여 수정케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공의의 하나님 경험이다(2절). 이와 같은 ‘과거의 하나님 경험’으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하고 있다.<sup>58)</sup> 이것은 하나님-탄원이면서 실제로 자신과 “인간의 아들들”과의 파괴된 사회적 관계와 그들의 손상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발하는 데로 나아가는 저항의 힘으로 작용한다.<sup>59)</sup> 그러므로 시편 4편에 나타나는 시인의 ‘과거의 하나님 경험’은 개인 탄원시에서 유일신개념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스라엘 탄원시의 ‘유일신론 문제’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아들들”은 어떤 특수한 고난의 상황에서 그 상황이 시인 개인의 고난이든 “인간의 아들들”과 시인이 함께 속해 있는 공동체 고난이든- 시인에게 거짓과 헛된 일을 일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5절).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시인은 자신을 경건한 자로 규명하며 ‘의의 하나님’을 의지 하고 있음을 결연히 보여주고 있다. 시인은 고난으로부터 구원

58) Hossfeld/Zenger, *룻글*, 61: 시인의 이들을 향한 비난 섞인 질문 뒤에는 최종적으로 야훼를 향하고 있는 비난이 함축되어 있다.

59) Hossfeld/Zenger, *룻글*, 61.

을 그의 과거의 ‘의의 하나님’에게로 소급해 가고 있다. 이것은 시인 고난과 관련하여 다른 신들의(Gottheiten)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간의 아들들”의 태도는 분명히 시인과 구별된다.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의 개인 탄원시와 바벨론의 탄원시를 들여다보자. 이스라엘의 개인 탄원시와 달리 바벨론의 탄원시는 모든 부정적인 고난의 경험들 질병, 폭력, 자연재해, 불행 그리고 불의를 다양한 신들의 능력과 악령(Dmonen)의 영향력으로 소급한다.<sup>60)</sup> 그래서 어떤 개인이 고난당하는 경우 자신의 신이 자신의 복된 삶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그들은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다른 신들을 찾는다. 자신에게 불행을 가져다준 신들에 대항하는 다른 세력을 가진 강한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고난 극복을 간청한다. 다신론적인 구조이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이스라엘 개인 탄원시의 시인과 그의 원수들의 갈등구조에서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sup>61)</sup>

물론 이스라엘 탄원시에서 고난 받는 자의 탄원(Klage)은 분명히 하나님-탄원이다. 하나님 탄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소(Anklage)의 의미는 단 하나뿐인 신, 야훼 하나님께 고난의 책임이 귀결된다. 그리고 동시에 한 분 이신 하나님, 야훼에게 구원을 기대한다는 것은 명확하다.<sup>62)</sup> 그리고 시편 4편의 시인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시인의 원수 되는 “인간의 아들들”은 그 상황이 시인 개인의 고난이든 “인간의 아들들”과 시인이 함께 속해 있는 공동체 고난이든- 시인에게 거짓과 헛된

60) E. S. Gerstenberger, Warum hast du mich verlassen?, M. Nüchtern (ed.), *Warum Ist Gott das zu?: Kritik der Allmacht Gottes in Religion und Philosophie* (Frankfurt a. M.: Lembeck, 1995), 4.

61) I. Lee, “Der Streit um das Gottesbild des leidenden Israeliten: Monotheismus und Theodizeefrage in ausgewählten Klagepsalmen des Einzelnen.”, (Peter Lang Verlag-Europäische Hochschulschriften Reihe XXIII Theologie Bd. 937, 2013) 35.

62) B. Janowski, *룻글*, 226, 비교 K. Butting, “Der Tod wird nicht mehr sein” (JK 66, 2005), 1-4.

일을 일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상황(5절)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인간의 아들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들이 시인이 현재의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과거의 하나님께 소급 가는 것을 거짓으로 규명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들의 하나님 이해를 시인과 구별되는 다신론적 신이해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4편의 중심부분의 시인과 그의 원수들과의 논쟁에서 시인의 하나님 이해는 개인 탄원시에 나타나는 유일신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시인은 현재의 고난의 상황에서 그들의 원수들처럼 하나님 없는 자 같이 행하지 않고(3절; 비교. 7절) ‘과거의 하나님 경험’(2절)에 근거하여 경건한 자를 선택하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의의 제사를 통해서 그의 유일신 신앙, 한 하나님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다.

## 2)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 이해와 시인의 신정론

시편 4편의 후반부에서 “많은 사람들”은 실제적인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 이해와 관련하여 극단적인 회의를 표면화 하고 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일 자가 누구인가?”(7절[6])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7절의 “많은 사람들”은 시인과 같은 공동 운명체이다. 그들은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신뢰를 상실한 공동체로서, 시인은 그들의 행위를 지배적인 혼돈의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sup>63)</sup> 이런 점에서 그들은 개인탄원시의 특징에 따라 시인의 원수이기도 하다. 시인과 그의 원수들, 이들 공동체의 논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신학적 문제는 시인의 유일신 이해와 어떤 상관성을 가질까?

시인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인용구,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일 자가 누구인가?”를 통해서(7절[6]) 그들의 고난에 관한 이해와 하나

님 이해를 표현하고 있다. 고난을 ‘선한 것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의 부재를 주장하고 있다.<sup>64)</sup>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현상은 고난과 관련하여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으로도 규정할 수 있다. 전반부의 신학적 논쟁이 발전되고 있다. 자신들의 고난에 ‘하나님’이 속수무책으로 서있는 것을 생각한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선을 보일 수 있는 다른 신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들의 고난 이해는 시인의 고난 이해와 하나님 이해와 상충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실제적인 고난의 상황을 ‘선한 것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하며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현상을 시인은 인용하여 그의 탄원으로 수용하고 있다. 시인은 그들의 하나님 이해를 자신의 하나님 이해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학적 견해를 개진하고 있다.<sup>65)</sup> 여기서 신정론이 발아된다. 시편 4편의 신정론에 대한 핵심 문제는, ‘하나님이 고난과 관련하여 어떤 입장에 있는가?’이다. 만약 하나님이 고난 받는 자의 불행이 막을 수 없다면,<sup>66)</sup>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과 관련하여 선한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그는 처음부터, 과연 정의의 하나님인가(2, 6절)?’를 시인은 묻고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고난과 관련하여 ‘하나님 부재’를 제시하는 반면, 시인은 자신의 과거 하나님 경험을 토대로 이들의 질문을 신정론으로 수용한다. 그러므로 시인의 신정론 문제는 특별히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소망의 기대 속에서 제시되고 있다.<sup>67)</sup>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 이해에는 유일신 개념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64) W. Groß, “Das verborgene Gesicht Gottes—eine alttestamentliche Grunderfahrung und die heutige religiöse Krise”, 185.

65) Hossfeld/Zenger, *룻글*, 62.

66) G. Fischer, *Neue Wege aus dem Trauma: Erste Hilfe bei schweren seelischen Belastungen* (Düsseldorf und Zürich: Patmos, 2003), 67.

67) B. Janowski, *룻글*, 350.

63) O. Keel, *룻글*, 137

때문에 신정론이 제시될 수 없다. 이와는 달리 시인은 유일신 개념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전능(全能)을 고난과 서로 배타적이며 양립할 수 없는 관계로 이해하고 있다. 시인은 그들의 다신론적 이해와 달리 그들의 하나님 이해를 탄원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모순을 지적하는 데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sup>68)</sup> 현재의 사건과 관련하여 시인은 고난의 최종적 책임과 관련하여(7a절) 하나님의 임재를 탄원하고 있다(7b절). 이 신정론에 관한 논쟁은 또한 과거 하나님 경험을 바탕으로 한(비교, 2-6절; 특별히 2절) 시인의 유일신 개념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자신의 하나님 이해를 제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원수들의) 하나님 이해를 수정을 요청하고 있다. 그는 고난의 궁극적 최종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sup>69)</sup> 이러한 믿음의 행위는 동시에 시인의 유일신 신앙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시편 4편은 유일신 문제와 신정론의 문제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sup>70)</sup>

#### 4.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시편 4편에 나타나는 시인과 그의 원수와의 갈등 구조를 살펴보고, 그 속에 나타나 있는 고난과 하나님 이해를 분석하였다. 시인은 그의 원수들과의 논쟁 속에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고난을 해석하는데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그들에게 관점 수정을 요청하고 있다.

고난을 해석하는 시인의 원수들의 견해는 다분히 다신론적 입장이다. 그들은 시인의 고난과 관련하여 시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파괴할 뿐

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인은 그들의 원수들과 구별되는 하나님 이해를 지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논쟁하고 그들의 주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시인은 자신의 하나님 이해를 찾아가고 있는 행보를 보여 주고 있다. 원수들은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지만 시인은 오히려 과거 그의 ‘의의 하나님’에게로 귀결함으로써 그의 유일신 개념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인은 그의 원수들과의 갈등에서 그의 하나님 이해를 더욱 다져간다. 그리고 원수들의 거둬되는 불신앙의 모습은 시인을 흔들림 없이 유일신 이해를 토대로 신정론으로 나아가게 한다. 시인의 신정론의 특징은 유일신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작용하며 실제적으로 고난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는 저항이다.

#### 5. 참고 문헌

- 김성수, “문맥으로 시편 24-33편 읽기”, 『구약논단』 48집 (2013년 6월), 68-98.
- 김태경, “시편연구사1990년 이후 현재까지”, 『구약논단』 53집 (2014년 9월), 325-356.
- 김희석, “시 144편에 나타난 다윗 왕권과 그 신학적 함의”, 『구약논단』 38집 (2010년 12월), 71-91.
- 함성국, 『시편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 E. 쟁어, 『복수의 하나님?』, (이일레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원제 Erich Zenger, E., *Ein Gott der Rache? Feindpsalmen verstehen* (Freiburg; Basel; Wien: Herder, 2011).
- Bauks, M., *Die Feinde des Psalmisten und die Freunde Ijobs. Untersuchungen zur Freund-Klage im Alten Testament am Beispiel von Ps 22.*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68) Vgl. Hossfeld/Zenger, 윗글, 61.

69) W. Groß, Das verborgene Gesicht Gottes—eine alttestamentliche Grunderfahrung und die heutige religiöse Krise, 186.

70) I. Lee, 윗글, 27.

- 2003).
- Bernbart, K. H., *Das Problem der altorientalischen Königsideologie im Alten Testament :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Geschichte der Psalmenexegese dargestellt und kritisch gewürdigt* (Leiden : Brill, 1961).
- Brndle, W., “Das Ende der Theodizeefrage?”, M. Nüchtern, ed., *Warum lässt Gott das zu?* (Lembeck: Frankfurt 1995).
- Butting, K., “Der Tod wird nicht mehr sein” (JK 66, 2005), 1-4.
- Crüsemann, F., “Im Netz. Zur Frage nach der „eigentlichen Not“ in den Klagen der Einzelnen”, R. Albertz, F. W. Golka and J. Kegler, ed., *Schöpfung und Befreiung*(Stuttgart: Calwer Verlag, 1989).
- Crüsemann, F., “Der Gewalt nicht glauben. Hiobbuch und Klagepsalmen - zwei Modelle theologischer Verarbeitung traumatischer Gewalterfahrungen”, F. Crüsemann/ M. Crüseman/ C. Janssen/ R. Kessler und B. Wehn, (ed.), *Dem Tod nicht glauben: Sozialgeschichte der Bibel. Festschrift für Luise Schottroff zum 70. Geburtstag*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4), 251-268.
- Duhm, B., *Die Psalmen* (KHC XIV), (Tübingen: Mohr Siebeck, 1922).
- Dürr, L., “Zur Datierung von Ps 4”, *Bib 16* (1935), 330-338.
- Gese, H., “Psalm 22 und das Neue Testament. Der älteste Bericht vom Tode Jesu und die Entstehung des Herrenmahles”, H. Gese, ed, *Vom Sinai zum Zion*, BEvTh 64 (München: Kaiser, 1974).
- Gerstenberger, E. S., *Warum hast du mich verlassen?*, M. Nüchtern (ed.), *Warum lt Gott das zu?: Kritik der Allmacht Gottes in Religion und Philosophie* (Frankfurt a. M.: Lembeck, 1995).
- Groß, W., “Das verborgene Gesicht Gottes-eine alttestamentliche Grunderfahrung und die heutige religiöse Krise”, W. Gro, (ed.), *Studien zur Priesterschrift und zu alttestamentlichen Gottesbildern, SBAB 30*,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1999).
- Gunkel, H., *Die Psalm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
- Gunkel, H. and Begrich, J., *Einleitung in die Psalmen: Die Gattungen der religiösen Lyrik Israels*, Zu Ende gefhrt von J. Begri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5).
- Faber, E. -M., *Warum? Der Glaube vor dem Leiden* (Schriftenreihe der Theologischen Hochschule Chur 2, Universitätsverlag, Freiburg Schweiz: Academic Press Fribourg, 2003).
- Fischer, G., *Neue Wege aus dem Trauma: Erste Hilfe bei schweren seelischen Belastungen* (Dsseldorf und Zürich: Patmos, 2003).
- Hitzig, F., *Die Psalmen I-II*, (Leipzig/ Heidelberg 1863/65).
- Hossfeld/Zenger, *Die Psalmen I. Die Psalmen 1-50*, (NEB 29, Bonn; Echter, 1993).
- Janowski, B., *Konfliktgespräche mit Gott. Eine Anthropologie der Psalme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Theologie, 2003).
- Keel, O., *Feinde und Gottesleugner. Studien zum Image der*

- Widersacher in den Individualpsalmen* (SBM 7,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1969).
- Koehler, L., “Alttestamentliche Wortforschung: Ps 8:5”, *ThZ 1*, (Basel 1945)
- Koch, (Art) “כִּפְּתָה”, *ThWAT*, Bd. II (1977) 857-870.
- Kraus, H.-J., *Psalmen 1. Psalmen 1-59* (BK XV/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Theologie, 1978).
- Lee, I., “Der Streit um das Gottesbild des leidenden Israeliten: Monotheismus und Theodizeefrage in ausgewählten Klagepsalmen des Einzelnen”, (Peter Lang Verlag-Europäische Hochschulschriften Reihe XXIII Theologie Bd. 937. 2013).
- Lesch K. J. and Saller, M., *Warum, Gott ...?* (Vechtaer Beiträge zur Theologie 2, Osnabrück, 1993).
- Müller, H.-P., “Gottesfrage und Psalmenexegese. Zur Hermeneutik der Klagepsalmen des Einzelnen”, K. Seybold and E. Zenger, ed., *Neue Wege der Psalmenforschung* (Freiburg/Basel/Wien: Herder, 1994).
- Neuhaus, G., *Theodizee-Abbruch oder Anstoss des Glaubens* (Freiburg: Herder, 1993).
- Neumann, P.H.A., *Zur neueren Psalmenforschung* (WdF CXCII,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6).
- Perlitt, L., “Die Verborgenheit Gottes”, H.W. Wolff ed, *Probleme biblischer Theologie* (FS G. von Rad) (München: Chr. Kaiser, 1971), 367-382.
- Oelmler, W., “Philosophische Antwortversuche angesichts des Leidens”, W. Oelmler, ed, *Theodizee-Gott vor Gericht?* (München: Fink, Wilhelm, 1990)
- Rendtorff, R.,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Ein kanonischer Entwurf, Bd 2: Thematische Entfaltung*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Theologie, 2001)
- Riede, P., *Im Netz des Jgers : Studien zur Feindmetaphorik der Individualpsalmen* (WMANT 85,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Theologie, 2000).
- Ringgren, “כִּפְּתָה”, *ThWAT*, Bd II (1977) 148-151.
- Ruppert, L., “Fluch- und Rachenpsalmen”, *NBL* Bd.1 (1991) 685.
- Shay, J. *Achill in Vietnam. Kampftrauma und Persönlichkeitsverlust. 1994, Mit einem Vorwort von J. Ph. Reemtsma* (Hamburg: Hamburger Edition, 1998).
- Stamm, J. J. “‘Ein Vierteljahrhundert’ Psalmenforschung”, *Theologische Rundschau* 23 (1955), 1-68
- Vanoni, Art., “כִּפְּתָה” *ThWAT*, Bd. VII (1993), 326-330.
- de Vos, C., *Klage als Gotteslob aus der Tiefe: Der Mensch vor Gott in den individuellen Klagepsalmen* (Forschungen zum Alten Testament 2. Reihe, Tübingen: Mohr Siebeck, 2005).
- Wahl, O., “Duallein, Herr, laß mich sorglos ruhen”, Haag/ F.-L. Hossfeld, ed., *Freude an der Weisung des Herrn: Beiträge zur Theologie der Psalmen; Festgabe zum 70. Geburtstag von Heinrich Groß* (SBAB 13,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1986).
- Weber, B., *Werkbuch Psalmen I, Die Psalmen 1 bis 72* (Stuttgart: Berlin; Kln: Kohlhammer, 2001).
- Westermann, C., “Struktur und Geschichte der Klage im Alten Testament”, *ZAW* 66, (1954) 44-80.

검색어

고난

원수들

유일신

신정론

과거 하나님 경험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 Theodicy and Monotheism Appearing in Individual Lament Psalms: Centered on Psalm 4

Il-rye Lee, Dr. theol. (Bochum University)  
Lecturer at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e “Sitz im Leben” of psalm 4, an individual lament, is a situation of dispute over the understanding of God in the Israelite community. The enemies of the poet appearing in the text are the “sons of men” and “many men.” Being associated with suffering, they are disputing with the poet over their different understandings of God. They have a type of authenticity in that they are establish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ut simultaneously they are using their understanding of God as a power of confusion against the poet. For their understanding of God, in relation to that of the poet, results in his existential

crisis. However, in this desperate situation the poet finds a new understanding of God, beyond the traditional one, through the entreaty of the enemies: faith in monotheism, with the poet’s past experience of God as a foundation (vss. 2-6). The poet’s past experience of God in Psalm 4 is his experience of God’s having protected him in the middle of a menacing situation (vs.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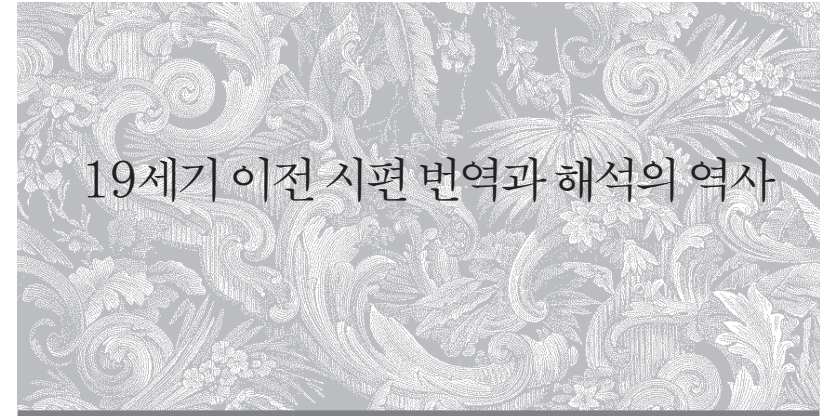
The poet’s experience of God is not only the overall summary of Psalm 4 but also the key part. The reason is that the poet does not look for a different God whenever he encounters suffering in his life, but is constantly led to entreat his God, Yahweh, whom he experienced in the past. The poet’s monotheism not only enables him to keep his faith at the peak of his suffering, but also extends his understanding of God. In addition, through his understanding of monotheism he gains ground for dealing with the issue of theodicy, which inevitably looms large in the context of suffering.

He poses theodicy as an answer in the dispute with his enemies. Just as Yahweh his God showed ‘God’s presence’ by saving him from his crisis in the past (vs. 2), he now confesses his absolute faith in Yahweh who will be present soon (vss. 8-9). The confession of faith in Yahweh who redeems those who are in suffering is the same as the confession of faith in the God of justice.

## Keywords

suffering  
enemies  
monotheism  
theodicy  
past experience of God  
God's presence and absence

- 투고일: 2015년 04월 01일
- 심사일: 2015년 04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5년 05월 06일



정중호(계명대)

## 1. 서론

한국 성경 해석사를 작성한 많은 학자들은 1900년 대부터 한국 성경 해석사를 시작하고 있다.<sup>1)</sup> 왜냐하면 1882년 존 로스(John Ross) 목사가 만주 심양에서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를 한글로 번역 출간하였기 때문이다.<sup>2)</sup> 그러나 한국인이 성경을 읽은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으며 비록 교리서와 발췌성경 형태를 읽기 시작하였지만 성경 내용을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1011014).

1) 문희석, 「한국교회구약성서해석사」, 1900-1977 (대한기독교출판사, 1978); 변조은, “한국교회의 성서해석사,” 문희석 편, 「구약성서해석학」 (대한기독교서회, 1975), 307-339; Tai Il Wang, “Retrospect and Prospect of Old Testament Studies in Korea,” 「구약논단」, 37집 (2010), 12-26.

2) 김중은, “한국어성경 번역의 역사,” 「기독교사상」, 410호 (1993. 2), 25.